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2015.3.16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노동력을 파는 것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의 파행은 삶의 질곡이다.” 방법은 있다. 그것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노동시장의 파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속임수는 그만두자.” 인권은 단지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생애에 걸친 모든 시점에 보장되어야 한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예이츠가 그리는 ‘비잔티움’과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당탕 벌어진 사건의 끝자락을 쫓는/쫓도록 되어있는 이야기 속 늙은 보안관 벨의 신체는 현실의 고령자의 삶을 함축한다. 앞으로 분석할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은,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후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젊은 세대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다.

익숙하고 우울한 지표부터 살펴보자.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고의 자살대국 한국(OECD 평균은 12.62명)¹⁾에서 특히 고령자 자살률은 압도적이다. 다음 표 1은 2005년의 연령대별 자살률을 나타낸 것인데, 한국의 55세 이상 자살률은 눈을 씻고 봐도 표 안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다. OECD 평균으로 봐도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으나, 연령대와 자살률 간

1) OECD(2013), “Suicide”,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연령대가 75세 이상인 국가의 수가 9개로 가장 많지만, 25-34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수도 8개이다. 사실 OECD 평균 자살률을 한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고연령대의 자살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마지막 행 참조). 한국에서 자살 위험은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대(25-54세)를 넘어서면 연령구간마다 2배씩 커진다.

표 1. 국가별 · 연령대별 자살률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Total
호주	13.0	18.5	12.6	11.2	9.4	12.2	7.6	10.2
오스트리아	13.3	14.3	12.1	17.8	18.5	23.4	21.6	13.8
벨기에	16.7	23.4	23.1	26.9	23.2	17.1	25.7	18.4
캐나다	13.6	15.1	11.6	12.8	11.3	10.5	7.3	10.2
체코	9.4	12.8	17.8	18.7	14.5	15.1	17.6	12.7
덴마크	11.3	9.2	13.9	14.9	14.1	18.9	20.6	11.3
핀란드	20.8	26.0	20.1	22.9	16.9	16.5	12.4	16.5
프랑스	9.4	17.2	19.6	22.4	18.4	21.3	18.9	14.6
독일	9.6	12.2	9.5	13.0	13.2	12.5	16.1	10.3
그리스	2.7	3.5	3.9	3.2	3.0	3.4	4.4	2.9
헝가리	9.5	15.3	32.1	33.6	27.2	26.5	36.1	21.0
아이슬란드	18.5	20.8	3.9	19.4	15.0	12.4	14.6	11.7
아일랜드	13.0	11.9	11.8	12.8	9.8	11.8	4.7	9.2
이탈리아	5.9	6.2	5.6	6.5	6.5	7.3	7.9	5.5
일본	21.2	24.9	24.6	29.9	22.0	17.9	14.6	19.4
한국	14.3	18.3	16.3	25.2	42.7	81.8	160.4	24.7
룩셈부르크	16.4	7.1	10.0	13.1	7.3	14.9	18.1	9.5
멕시코	5.9	5.7	5.1	5.5	6.6	9.4	15.2	4.4
네덜란드	7.0	9.3	10.0	12.6	10.4	7.5	9.5	7.9
뉴질랜드	22.6	19.7	13.3	10.0	11.9	10.2	10.7	11.9
노르웨이	16.8	19.2	13.8	10.8	12.3	9.5	6.3	10.9
폴란드	11.5	14.5	20.5	19.4	20.9	16.6	11.0	13.8
포르투갈	4.7	8.1	8.7	10.1	13.9	13.9	20.2	8.7
슬로바키아	7.9	9.9	14.0	18.2	16.0	13.3	16.5	10.9
스페인	5.4	6.2	6.4	7.1	8.1	10.7	10.5	6.3
스웨덴	15.6	11.8	13.2	15.0	13.0	15.3	9.2	11.1
스위스	14.8	15.1	11.7	17.2	16.5	24.5	26.5	14.1
영국	6.3	10.8	8.4	8.7	6.2	4.8	3.8	6.0
미국	11.8	14.1	12.2	12.6	12.1	14.1	11.7	10.1
OECD-29 (2005)	12.0	13.8	13.3	15.6	14.5	16.3	19.3	11.7
OECD-28 (한국 제외)	11.9	13.7	13.2	15.2	13.5	14.0	14.3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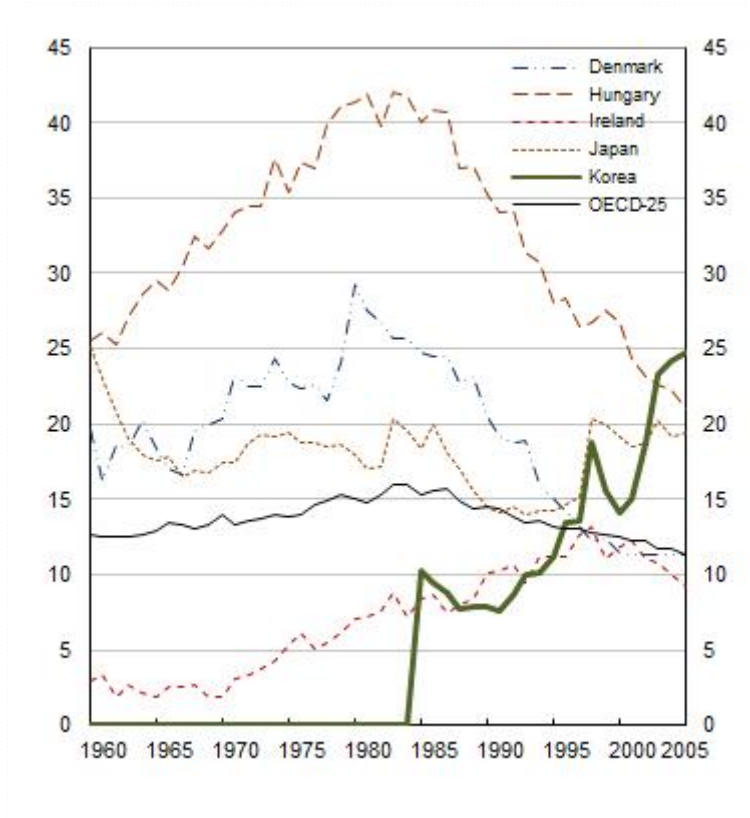
출처: OECD(2008), Society at a Glance 2008: OECD Social Indicator.

OECD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다른 국가들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 초를 지나며 꾸준히 늘었다.



상기하였듯이 더 최근 자료에서는 33.5명으로,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이는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림 1. 국가별 · 연도별 자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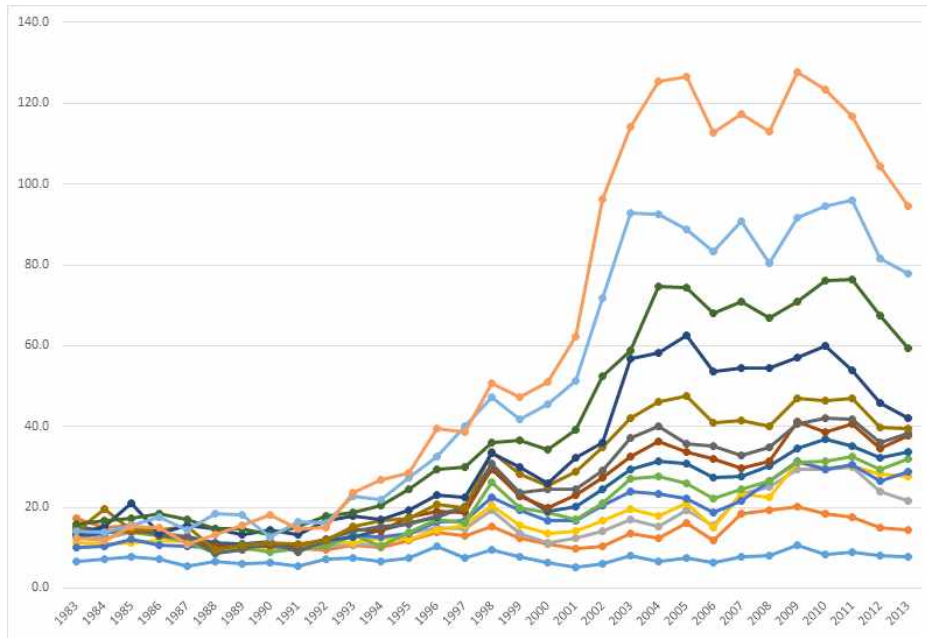
출처: OECD(2008), Society at a Glance 2008: OECD Social Indicator.

그림 2는 15세부터 5세 간격으로 연령 구간을 나누어 자살률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²⁾ 범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2013년 현재 가장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고연령 구간이다.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이다. 그러나 자살률과 연령대의 이러한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나, 고연령대에서 자살률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결과이다.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고령자들이 살기 힘든 사회였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유난히 고령자에게 더욱 혹독해졌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고령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단 말인가?

2) 이 자료의 자살률은 OECD에 보고된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출산율, 사망률 등의 지표가 확정적 통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생아 수나 사망자 수는 집계 기간 동안 누적된 수로 나타낼 수 있으나, 비율로 환산하기 위해 분모로 이용하는 인구는 매 시점 달라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를 기반으로 계산하며, OECD의 경우 2010년의 인구구조를 이용하여 표준화한다.



그림 2. 연령대별 자살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 참조.

고령자 자살률과 함께 언급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지표는 바로 빈곤율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전소득을 포함한 세후 소득의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할 때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2011년 현재 48.6%로 회원국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년도 평균인 11.6%의 네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자들을 자살로 내모는 상황을 경제적인 이유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빈곤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비중이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1%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고령자 빈곤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고령자의 다수가 빈곤하고 빈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킨다. 표 2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이 59세 이하의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어땠는지를 배율로 나타낸 것이다. 임금노동자 중 고령자의 비중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연공서열제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임금은 평균을 끌어올리는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위치로 변화했다. 이는 상용직 5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고령자가 노동시장 내에서 주변부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유선(2014)³⁾의 분석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고,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꾸준히 높아진다. 60-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67.4%, 여성은 86.1%이다.

3) 김유선(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이슈페이퍼 2014-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 2. 고령자의 임금 배율

연도	고령자 비중(%)	배율*		연도	고령자 비중(%)	배율*	
		시간당 임금	월급여			시간당 임금	월급여
1988	0.67	1.55	1.46	2001	3.02	0.84	0.87
1989	0.82	1.40	1.33	2002	3.12	0.74	0.79
1990	0.95	1.23	1.17	2003	3.72	0.76	0.80
1991	1.20	1.12	1.09	2004	4.06	0.76	0.79
1992	1.57	1.10	1.07	2005	4.19	0.89	0.89
1993	1.64	1.06	1.02	2006	3.34	0.79	0.81
1994	1.92	1.02	0.99	2007	3.59	0.80	0.83
1995	2.17	0.96	0.96	2008	3.52	0.80	0.83
1996	2.56	0.91	0.92	2009	3.93	0.78	0.81
1997	3.04	0.89	0.90	2010	4.21	0.77	0.79
1998	2.98	0.89	0.91	2011	4.86	0.75	0.77
1999	2.87	0.93	0.92	2012	4.95	0.79	0.79
2000	2.96	0.89	0.89	2013	5.43	0.81	0.82

출처: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직 5+ 원자료

* 월급여 비교를 위해 고용형태 중 단시간은 제외.

다음의 그림 3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 기반인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 분리 곡선(segregation curve)이다. 그래프 양축의 숫자는 관리직부터 단순노무직까지 직종군을 의미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인다. 즉 45° 선에 빨간 색의 분리 곡선이 가까울수록 직종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중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한 1988년과 1998년의 분리 곡선은 언뜻 보기에 1998년에 분리가 심화된 듯 보인다. 45° 선과 분리 곡선 사이의 넓이가 더 넓어진 것은 더 작은 숫자로 표현되는 고위 직종군에 더 적은 비중의 고령자가 분포하고 최하위 직종군에 쏠려있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와 같이 상이함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⁴⁾는 1988년에 0.4237이었으나 1998년에는 0.5260으로, 고령자의 직종 분리는 심화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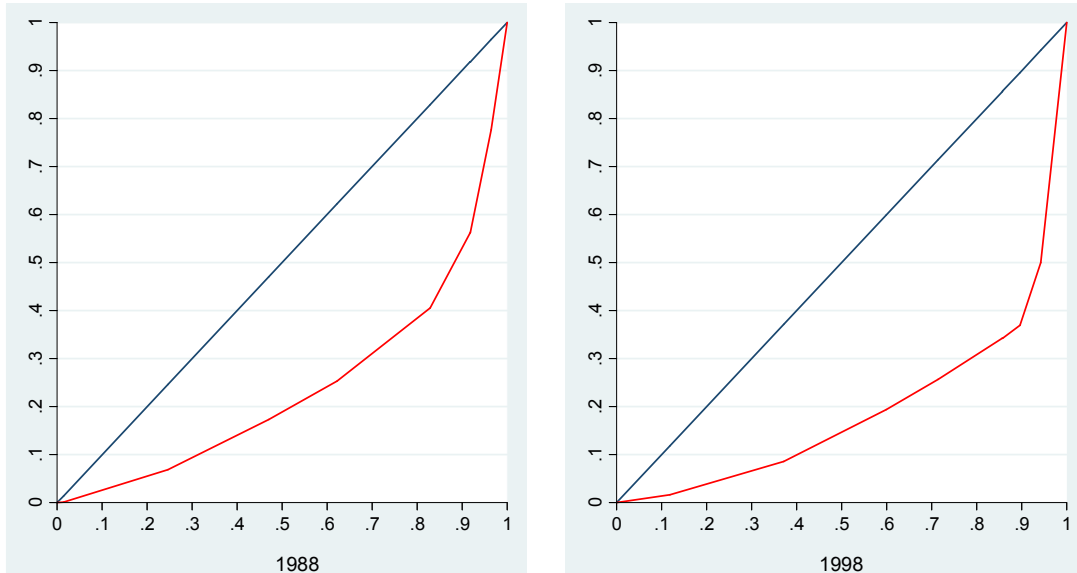
4)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ac{1}{2} \sum_{i=1}^k \left| \frac{n_i}{N} - \frac{w_i}{W} \right|$.

이 분석에서 i 는 직종, n 은 고령자, w 는 비고령자이다. 상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5) 이후 직종분류가 달라졌으므로 직종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고령자의 실태 변화가 관측되는 1990년대 중반에 집중하고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3. 분리 곡선



출처: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직 5+ 원자료.

직종별로 나타낸 고령자의 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령자가 쏠려 있는 단순 노무직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표 3의 평균 대비 직종별 시간당 임금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에 단순노무직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가장 낮는데, 이 직종의 상대적 위치는 항상 나빴던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것이다.

표 3. 평균 대비 시간당 임금 배율

직종	1988	1998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67	1.95
전문가	2.41	1.41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3	1.19
사무직원	0.94	0.96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0.79	0.75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0.87	1.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74	0.8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73	0.80
단순노무직	0.92	0.56

출처: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직 5+ 원자료.

표 4는 2012년의 업종과 직종이 교차하는 단위로 정의된 일자리별 평균 대비 시간당 임금 배율과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은 고령자 비율로,



전일자리 평균 비율이 5%인데 반해 10%이상 집중된 일자리를 과밀 일자리로 보고 음영으로 표현했다.

표 4. 일자리(산업×직업) 지도

	1	2	3	4	5	6	7	8	9	전직종
1	2.19 (0.09)	1.36 (0.04)	1.27 (0.04)	0.73 (0.17)	0.88 (0.03)	0.68 (0.12)	0.90 (0.07)	0.83 (0.13)	0.56 (0.17)	1.05 (0.08)
2	1.69 (0.23)	1.18 (0.06)	1.02 (0.09)	0.60 (0.28)	0.96 (0.07)		1.06 (0.09)	1.01 (0.07)	1.16 (0.14)	1.05 (0.09)
3	1.89 (0.11)	1.24 (0.01)	1.07 (0.03)	0.61 (0.19)	1.03 (0.03)	0.79 (0.13)	0.78 (0.04)	0.76 (0.03)	0.59 (0.10)	0.91 (0.03)
4	1.83 (0.01)	1.62 (0.00)	1.63 (0.00)	1.05 (0.00)	1.34 (0.00)	1.52 (0.07)	1.48 (0.00)	1.50 (0.00)	0.83 (0.09)	1.53 (0.01)
5	1.71 (0.17)	1.08 (0.03)	0.97 (0.05)	0.52 (0.30)	0.97 (0.03)	0.49 (0.22)	0.83 (0.05)	0.86 (0.06)	0.71 (0.17)	0.90 (0.07)
6	1.81 (0.07)	1.13 (0.03)	1.13 (0.05)	1.13 (0.03)	1.23 (0.09)	0.73 (0.22)	0.87 (0.06)	0.77 (0.04)	0.63 (0.12)	1.05 (0.05)
7	2.26 (0.07)	1.22 (0.03)	1.11 (0.03)	0.60 (0.07)	0.87 (0.01)	0.67 (0.08)	0.82 (0.01)	0.82 (0.04)	0.57 (0.09)	0.97 (0.03)
8	1.67 (0.12)	1.65 (0.13)	1.10 (0.04)	1.04 (0.02)	0.97 (0.02)	0.76 (0.00)	1.17 (0.04)	0.67 (0.12)	0.70 (0.11)	0.91 (0.09)
9	1.33 (0.11)	0.85 (0.02)	0.85 (0.03)	0.57 (0.05)	0.62 (0.02)	1.00 (0.09)	0.66 (0.07)	0.73 (0.13)	0.49 (0.12)	0.61 (0.06)
10	2.66 (0.04)	1.35 (0.01)	1.33 (0.01)	0.99 (0.01)	1.24 (0.00)		1.17 (0.00)	1.21 (0.04)	0.57 (0.18)	1.33 (0.01)
11	2.30 (0.03)	1.74 (0.00)	1.42 (0.00)	0.68 (0.04)	1.14 (0.01)	1.06 (0.00)	1.00 (0.00)	1.08 (0.04)	0.61 (0.14)	1.47 (0.01)
12	1.77 (0.14)	1.41 (0.05)	0.98 (0.06)	0.86 (0.07)	0.90 (0.04)	0.71 (0.40)	0.70 (0.12)	0.64 (0.16)	0.40 (0.71)	0.69 (0.36)
13	2.86 (0.09)	1.46 (0.03)	1.24 (0.02)	0.73 (0.03)	1.24 (0.01)	0.77 (0.00)	1.00 (0.07)	1.07 (0.03)	0.69 (0.22)	1.38 (0.03)
14	1.99 (0.08)	0.97 (0.02)	0.95 (0.03)	0.79 (0.01)	0.87 (0.00)	0.72 (0.08)	0.75 (0.06)	0.70 (0.05)	0.55 (0.26)	0.82 (0.07)
16	1.96 (0.21)	1.43 (0.04)	1.13 (0.02)	0.55 (0.03)	0.96 (0.02)	1.16 (0.05)	0.94 (0.08)	0.99 (0.21)	0.51 (0.33)	1.28 (0.06)
17	1.48 (0.17)	0.97 (0.01)	0.92 (0.02)	0.65 (0.14)	0.89 (0.03)	0.44 (0.23)	0.89 (0.09)	0.79 (0.16)	0.54 (0.28)	0.90 (0.05)
18	1.92 (0.18)	1.05 (0.01)	0.95 (0.02)	0.75 (0.03)	0.65 (0.01)	0.83 (0.11)	0.85 (0.07)	0.82 (0.12)	0.55 (0.28)	0.88 (0.06)
19	1.90 (0.10)	0.84 (0.06)	0.99 (0.04)	0.63 (0.09)	0.69 (0.02)	1.01 (0.14)	0.83 (0.02)	0.71 (0.09)	0.53 (0.29)	0.81 (0.07)
전업종	2.05 (0.10)	1.25 (0.02)	1.13 (0.03)	0.67 (0.08)	0.93 (0.02)	0.76 (0.13)	0.85 (0.04)	0.76 (0.05)	0.55 (0.24)	1.00 (0.05)

출처: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상용직 5+ 원자료.


주: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산업(9차)과 직업(6차)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산업(1농림어업 2광업 3제조업 4전기가스증기및수도산업 5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건설업 7도소매업 8운수업 9숙박및음식점업 10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금융및보험업 12부동산업및임대업 13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6교육서비스업 1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9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0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직업(1관리자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숙련기능종사자 7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단순노무직 일자리에서 고령자 비중은 24%로, 심각한 고령자 과밀 직종이다. 그리고 직종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의 55% 수준이다. 반면 관리자 직종에서 고령자 비중은 10% 정도로 낮고 이들의 임금은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의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위를 높여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중심부에 속한 사람들과 주변부로 위치한 사람들 간의 격차는 고령자들 내에서 더 크다. 2012년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는 0.321이었는데 이를 고령자와 비고령자 각각에 대해 구하면 고령자가 0.399, 비고령자가 0.315이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단순노무직 일자리에서 고령자 비중은 71%이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평균의 40%로 전체 일자리 중에서 가장 낮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업종 중에서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별 시간당 임금 수준에 대해 고령자 비율을 회귀분석하면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간단히 말해서 고령자가 많은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낮다. 협상 게임에서 교섭의 상대자가 약할수록 게임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략이 단순해진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게임 참가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가자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일 때 약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단은 약한 집단이 된다.

“노동력을 파는 것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의 파행은 삶의 질 곡이다.”⁷⁾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그것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노동시장의 파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속임수는 그만두자.”⁸⁾ 인권은 단지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생애에 걸친 모든 시점에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 고령자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생애 각 시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6) 160개 일자리 속성에 대해 단변량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더니, 회귀계수는 약 -1.18(p-value < 0.01에서 유의함)이었다.

7) 홍태희(2014), “11장 노동시장과 여성의 경제”, *여성주의 경제학: 젠더와 대안경제*, 도서출판 한울.

8) 보부아르, 시몬 드(2002), *노년: 나이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홍상희·박혜영 옮김, 책세상.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목록

2015년 3월 1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